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33호

귀국선수단 환영 나온 문체부, 말도 없이 해단식 취소해 버린 체육회. 多 메달의 딜레마

'너네 다 조져버린다?' vs '어디 해봐! 메달 많이 따왔는데?' 문체부, 체육회, 안세영 發 전쟁...왜?

- ✓ 문체부 산하 기관인 대한체육회, 같은 식구 아냐? 두 양측의 불편한 공존의 배경
- ✓ 조질 날만 기다려왔다! 안세영 폭로로 탄력받은 문체부, 이참에 체육회 제대로 쓸어버려?
- ✓ 문체부 조사, 큰힘 발휘 못 할 것, 안세영, 신호탄 쏘지만, 완성은 선수 모두가 해야...

권용진 뉴스워커 기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길 바라는 것뿐"

입장 밝힌 안세영 "키 친 협회, 외면 말고 적극 행동해주시길"

김주희 뉴시스 기자

오피니언

체계적인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조사권 강화, 징계 요구의 강제성, 외부 압력과 영향을 차단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요구사건 39% 경징계에 그쳐...57%는 각하

김동찬 연합뉴스 기사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너네 다 조져버린다?' vs '어디 해봐! 메달 많이 따왔는데?' 문체부, 체육회, 안세영 發 전쟁...왜?

2024년 8월 13일, 파리 올림픽의 영광을 안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 그러나 이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박수가 아닌, 어색한 침묵이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마련된 해단식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이 선수들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대한체육회도 장관 환영사, 체육회장 답사, 정강선 선수단장의 결과 보고 등의 순서를 예행연습까지 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 이기흥과 선수총장 장재근은 갑작스럽게 해단식을 취소해 버렸다. "선수들의 피로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이 해명이었다. 해단식을 준비했던 문체부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간의 오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라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내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인해 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가 드러나면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안세영 선수의 폭로와 관련된 질문을 회피하며, 해단식 취소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왜 하필 지금, 문체부와와의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너무 대놓고 심기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더욱이 안세영 선수의 추가 폭로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7년간의 국가대표 생활 동안 겪었던 선후배 간의 부조리를 폭로했다. 라켓줄 교체, 방 청소, 심지어 빨래까지,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만이 아닌, 한국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안세영은 국내 복귀 후 이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자신의 SNS 통해,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안세영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직후 배드민턴협회에 선수 부상 관리, 훈련 방식, 대회 출전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고 문체부는 이것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그것에 대해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대체 이 두 기관의 관계는 왜 이렇게 꼬여버린 것인가?

문체부 산하 기관인 대한 체육회, 같은 식구 아냐? 두 양속의 불편한 공존의 배경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말이 있다. 문체부와 체육회의 관계가 꼭 그렇다. 공식적으로 체육회는 문체부 산하기관이다. 겉으로는 같은 식구지만, 내면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마치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이복형제와도 같은 모양새다.

문체부는 정부 기관이다. 국가의 체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체육회는 좀 더 복잡하다. 비영리기관이면서 동시에 민간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정체성이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두 기관은 사사건건 부딪친다. 예산 배분을 둘러싼 갈등, 체육회 정관 개정과 임기 제한을 둘러싼 논란, 체육회의 독립성 유지를 둘러싼 논쟁 등. 특히 최근에는 이기흥 회장의 체육회의 사유화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모든 갈등의 바닥에는 '권력'과 '자율성'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있다.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을 아우르는 감독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주장한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국제 체육계에서 인정받는 자율성을 내세운다. 이 둘의 균형점을 찾는 것, 그것이 한국 체육계의 숙제다.

조질 날만 기다려왔다! 안세영 폭로로 탄력받은 문체부, 이참에 체육회 제대로 쓸어버려?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문체부에게 그때가 왔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인해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부조리가 세상에 드러났고, 이는 문체부가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의혹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두 기관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다만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앞두고 잠시 휴전 상태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 휴전이 끝났다. 문체부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번에야말로 체육회를 송두리째 뒤집어엎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다음 장 계속

문체부 입장에서 대한체육회는 늘 눈엣가시 같은 존재. 예산은 정부에서 받아 가면서, 운영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가 못마땅했던 것일까. 감시 감독의 권한을 가진 문체부 입장에서는 대놓고 상급 기관의 방침을 거부하는 체육회에 체면을 구겨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번 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다. 이제 그들은 '선수 인권 보호'라는 대의명분까지 얻었다.

게다가 국민 여론도 문체부 편이다. 메달의 영광 뒤에 숨겨진 체육계의 부조리한 실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을 것이다. "이때다" 싶어 칼을 빼 들었다. 과연 그들은 이번에 체육회를 제대로 '조질' 수 있을까?

쉽지 않네 1 : 조선체육회, 대한체육회? 우리는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던 기관, 표심은 어쩔?

"역사는 힘이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들의 뿌리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조선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들의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해왔다.

이런 역사적 배경은 대한체육회에 남다른 권위를 부여한다. 그들은 단순한 체육 단체가 아니다. 한국 체육의 역사 그 자체다. 이런 무게감은 문체부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항일 시기부터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동안, 국위선양을 담당해 온 수많은 역사와 산 증인들이 어떤 고리로든 대한체육회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체육회를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것이 체육계에 종사하는 잔뼈 굵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양상 예산은 문체부로부터 배부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원하는 곳에 집행하는 곳은 체육회이다. 이들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 한둘이 아니고 거기에 걸려있는 이권도 상당해 보인다.

또한, 국내외의 수많은 스포츠인들이 가진 표심을 생각하면 함부로 하기도 힘들다. 올해 들어 4월 총선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 올 초에도 문체부와 체육회는 갈등의 골이 깊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출범 및 체육회 추천 인사 배제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선수들을 동원한 집회까지 나섰다. 그러나 더 번지지 않았다. 총선이 코앞에 있었으니...

이런 역사와 정치적 위상을 가진 대한체육회를 문체부가 쉽게 손댈 수 있을까? 아무리 정부 기관이라 해도, 마음대로 흔들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바로 문체부가 체육회를 상대로 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다.

쉽지 않네 2 : 내가 너 상급 기관이야. 감독할 권한 vs 법과 세계가 보장해 준 자율성, 네가 뭔데?

"내가 너네의 상급 기관이야! 우리의 통제에 따라줘야지" 문체부의 주장이다. "그래, 근데 난 특별해." 대한체육회의 반박이다. 이 둘의 관계는 복잡하다. 마치 권력과 자유를 두고 벌이는 줄다리기와도 같다.

행정적으로 보면 문체부가 상급 기관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체육단체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체육단체는 자율적으로 그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조직 및 운영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부당한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대한체육회의 특수성, 그러면서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률적인 장치들이 이 둘로 하여금 서로에게 함부로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기흥 체제 이후, 체육회는 정치 집단화가 너무 진행됐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좋은 취지로 설계된 법률이 국민의 의지대로 집행되는지조차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제 스포츠계의 관행도 문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문체부에 맞서 자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우리는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다. 선진국이나 되는 나라가 국제관행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다? 우리나라의 사형제가 사실상 사문화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복잡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 속에서 두 기관의 알력은 더욱 심화된다. 정치적으로도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체육계 인사들의 정치권 진출, 정치인들의 체육계 영향력 행사 등이 이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이 문제는 '누가 더 힘이 센가'의 싸움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두 기관은 여전히 '내가 너보다 위'라는 유치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쉽지 않네 3 : 너네 돈 깎아? 버릴 수 없다. 예산 앞에 한 가족. 제 살 깎아 먹을 수는 없는 법

"돈이 있어야 사람도 살고 집안도 돌아간다"고 했던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둘을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 그것은 바로 '예산'이다.

2024년 문체부의 체육 관련 예산은 무려 1조 6,701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3년보다 약 3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그중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4,094억 원. 전체 체육 예산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 거대한 자금줄은 문체부를 거쳐 체육회로 흘러 들어간다. 당연히 그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두 기관 모두 원하는 바이다.

이 예산의 사용처를 들여다보면 더욱 흥미롭다. 2024 파리하계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경기력 제고 및 훈련 환경 개선에만 1,436억 원이 배정되었다. 급식비 인상(1일 4.4→5만 원), 촌외 훈련 숙박비 현행화(6→8만 원), 국외 전지훈련 확대 등 선수들의 환경 개선에 4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체육인교육센터 건립에 126억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수십억 원 등 예산의 사용처는 다양하다.

하지만 이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문체부가 체육회의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다. 다만, 문체부가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며, 체육회의 부조리를 파헤치고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올림픽 내내 선수들을 보는 여론은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21세기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국위선양을 위해 선수들에게 내 세금이 투입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선수 했고, 메달을 따왔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은 당연 나올 수 있는 말이다. 만약, 문체부와 체육회의 다툼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 혹여나 국민의 이런 심기를 건드린다면 둘 모두 패자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면, 체육 예산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그 결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체육회뿐만 아니라 문체부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 1조 6천억 원이 넘는 문체부의 체육 예산, 그리고 그중 4천억이 넘는 체육회 예산. 이 거대한 예산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면, 그 파장은 한국 체육계 전체에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갈등은 일정 선을 넘지 않는 '맞춤형 갈등'에 그치고 말 것으로 예상된다. 제 살 깎아가면서까지 싸우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다.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할 것이고 여태껏 그래 왔다. 이것이 바로 문체부와 체육회가 끊임없이 대립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다. 예산 앞에 대동단결. 두 기관은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들의 싸움을 마냥 좋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쉽지 않네 4 : 기대치 낮추는 빌드업? 금메달 예측 5개, 결과는 13개, 안세영 금메달 추가의 딜레마

"과소평가는 때로 최고의 무기가 된다."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시기상 체육회의 빌드업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는 올림픽 출전 전 "메달 5개, 종합 순위 15위"라는 다소 보수적인 예상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금메달만 13개, 종합 순위 8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원래 사람은 기대를 안 했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더욱 드라마틱하게 다가오는 법이다.

애초에 예상했던 금메달 5개 안에 안세영의 메달도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배협의 행태를 보면, 그리고 그녀가 인터뷰에서 '메달 1개밖에 못 딴 이유'를 말한 것을 보면, 아마 체육회의 계산 안에 안세영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면 좋고, 못 따도 기대 안 했을 그녀의 메달은 우리를 기쁘게 했고, 본인에게는 개혁의 신호탄이었지만, 동시에 체육회 입장에서는 그들의 성과도 된다. 사상 최소 규모로 출전한 선수단, 애초에 5개밖에 못 따는 선수 구성이었는데, 2배 넘게 초과 달성했다? 숫자는 조작할 수 없으니까...

애석하게도 선수들이 메달을 더 많이 따왔기 때문에 체육회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아무리 온갖 문제가 터졌지만, 그래도 "메달을 이렇게 많이 땀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논리로 개혁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게 된 것이다. 메달은 곧 성과고 그들이 주장하듯 메달은 '선수 혼자' 딴 것이 아니니까. 문체부를 면박 준 해단식 취소의 당당함도 여기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多 메달의 딜레마'다. 메달이 많이 나올수록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가려질 수 있다. 체육회에 이를 갖고 있는 문체부조차, 예측의 2배 이상을 초과 달성한 그들을 일방적으로 조질 수가 없게 되었다. 안세영의 폭로는 문체부에게 명분을 준 반면, 그녀의 금메달 추가는 양날의 검이 되었다. 만약 체육회의 예상대로 저조한 성적에 그쳤다면, 오히려 체육계 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졌을지도 모른다.

다음 장 계속

문체부 조사, 큰 힘 발휘 못 할 것, 안세영, 신호탄 쏘지만, 완성은 선수 모두가 해야...

"폭풍 전야(前夜)"라는 말이 있다. 지금 문체부와 체육회의 관계가 꼭 그렇다. 안세영 선수의 폭로로 인해 거센 폭풍이 올 것만 같은 분위기다. 하지만 과연 이 폭풍이 체육계를 정화시킬 수 있을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문체부의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그 힘이 미치는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 기관은 서로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문체부의 조사가 걸핍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체육회를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치 집단화되어 가는 체육회의 모습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바로 선수들과 국민들의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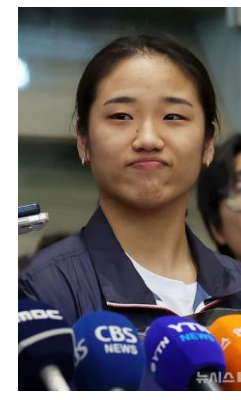
안세영 선수는 용기 있게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 불씨가 꺼지기 전에 더 많은 선수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숨어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분란을 조장하는 일이 아니다. 그들의 증언이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이 여론이 국회로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해진다.

결국 체육계 개혁의 열쇠는 각각의 선수들의 손에 있다. 그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다. 뒷사람들끼리만 아웅다웅하다가 끝날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새로운 도전이고 극복이다. 스포츠 정신은 필드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기에...

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입장 밝힌 안세영 "키 쥘 협회, 외면 말고 적극 행동해주시길"



뉴시스
김주희 기자

2024.08.16

'작심 발언' 후 말을 아끼던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세영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날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과 관련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된다.

안세영은 먼저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하기까지 이끌어준 가족과 지도자들, 동료 선후배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자신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배드민턴협회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안세영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관한 것"이라며 "특히 부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하기에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바랐다"고 적었다.

이어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현실에 맞닿은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해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자리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시스템, 소통, 케어 부분에 대한 서로의 생각 차이를 조금씩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운영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의 발언을 두고 진위 파악에 나선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협회가 선수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협회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셨으면 한다.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안세영은 지난 5일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우승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인 경기 직후 "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에 많이 실망했다"며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하고 계속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폭탄 발언을 꺼냈다.

안세영과 협회의 논란은 일파판파 커졌고, 협회는 이날 변호사 2명, 교수 1명, 협회 인권위원장, 감사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 안세영은 참석하지 않았다.

자료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6_0002852338

체계적인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해양스포츠전공) 교수

대한체육회 미래발전위원회 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위원
한국 e-스포츠협회 이사
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2024.08.18

뜨거운 여름밤을 더욱 열기 있게 만들고,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며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였던 2024 파리올림픽이 17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며 막을 내렸다.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144명)에도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 성적(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종합성적 8위)은 그야말로 우리 선수단의 '투혼'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힘든 상황에서도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체육단체 관계자와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다. 메달을 획득한 종목 외에도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였다. 승부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고, 선수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체계적인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비인기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나 종목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올림픽 5회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과 아름다운 도전을 한 요트의 하지민, 육상 종목의 유일한 희망인 스마일 점퍼 이상혁,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 노장의 투혼을 보여준 브레이킹의 김홍열, 여자 복싱의 사상 첫 메달을 가져온 임애지, 아시아 최초 여자 근대 5종 메달리스트 성승민 등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 선수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법률에서도 이러한 선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체육인의 권리와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제8조)을 규정하여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성과를 낸 선수와 지도자 총 96명에게 약 15억원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서도 '선수 등의 육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 마련과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고용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제18조의2)'을 통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선수 보호 및 육성 등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과 중심의 금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선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에서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는 훈련 및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한 선수가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는 아낌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선수의 능력이나 기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협회의 지원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 개개인의 투혼에 빛나는 노력과 함께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자 및 협회·체육회, 정부의 지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선수자원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고,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지원 등은 향후 종목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집중하여야 하는 현안이다. 특히 선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부상 방지나 회복 등 컨디션닝에 대하여는 스포츠과학을 기반으로 우수한 선수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보호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의 국가대표 훈련비 배분 방식이나 관련 예산의 마련도 고려되어야 한다.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세계적인 우수 선수자원의 관리나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확대나 체육단체의 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분야의 후원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올림픽에서 14세의 선수가 참가하고, 메달을 따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이나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예전 방식의 지도나 훈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MZ 시대의 선수와 소통 중심의 선진 지도·훈련 및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비인기종목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협회나 단체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계약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드래프트제나 샐러리캡, FA제도 등은 스포츠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선수 개인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합헌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특히 후원이나 스폰서십의 경우도 해당 협회나 단체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선수 개인의 권익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나 활성화와 직업인으로서 선수 개인의 이익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조화와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혼은 한여름밤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한 단비 같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올림픽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일 것이다. 2028 LA올림픽과 2032 브리즈번올림픽에서도 또다시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선수자원 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진화된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의 마련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육인이 국가의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
KOREA SPORT ETHICS CENTER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요구사건 39% 경징계에 그쳐...57%는 각하

2024 파리 올림픽이 끝나면서 각종 체육 단체의 불공정한 선수 관리, 독단적인 행정 등이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약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13일 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사건 처리 기한(150일) 내 처리율은 47.7%에 불과하며,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340건 중 실제로 체육단체에서 징계가 이뤄진 비율도 59%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중징계를 요구한 28건 중 39%인 11건은 경징계 처리됐고, 윤리센터가 처리한 사건 1천682건 가운데 57%인 958건이 각하됐다.

각하 처리 이유는 본인 또는 신고인의 취하가 주를 이루지만, 가해자와 원치 않는 합의나 협회나 소속팀 압력이 작용한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김승수 의원실은 "최근 불거진 체육계 불공정 문제는 고질적인 파벌주의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솜방망이 처벌,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독 기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체계 등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 근절 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그 설립 취지를 살리려면 역량 및 조사권 강화, 징계 요구의 강제성, 외부 압력과 영향을 차단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과천시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박차...2026년 준공 예정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819580153>

국민체육진흥공단, 2024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개최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19_0002854307

동아대-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취업 교육 실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1913301534263>

체육기자연맹, 9월 2일 한국축구 정책토론회 개최

<https://www.news1.kr/sports/soccer/5514594>

한국체육학회, 22~23일 서울 올림픽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40819118000007?input=1195m>

미국 미시간서 광복절 기념식 및 한마음 동포 체육대회 열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5537

“빨래 모아서 후배가 하는 시스템” 김연경도 지적한 ‘체육계 악습’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30107&code=61121111&cp=nv>

양구군 테니스팀 찾아가는 체육 교실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4081913274932291>

‘장애인 체육 후원자’ 오승환, 패럴림픽 선수단 2000만원 후원...“열심히 응원하겠다”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54878?ref=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